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광주 최초! 뉴욕감성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8월 20일 오픈 T.372-6666 시공 삼일건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365호 1판 (음력 9월 4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와 큰 틀 합의 중요"

전환점 맞은 행정통합 시·도 논의 급물살 타나

'2단계 공론화 절차' 수용 지지부진 했던 논의 '물꼬'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의회에서 밝힌 2단계 논의 절차를 사실상 이용섭 광주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시·도 간 통합 방식이나 시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송형일 광주시의원의 시·도 통합 관련 시정질문 답변에서 또다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통합 논의는 양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의 틀 속에서 자유롭고 폭넓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을 위한 담대한 전략,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 해소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합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통합 방식이나 시점들은 시·도민들께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말한 경제통합이나 메가시티 등도 논의기구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도 간 행정통합 만을 주장했던 이 시장이 다양한 통합 방식과 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시·도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김 지사를 의식한 듯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찬성했지만, 방법과 시기론을 놓고 입장이 각각 달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었다.

이 시장은 이날 송 의원이 제안한 시·도 공동용역발주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시도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통합 논의기구에서 공동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최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통합의 장단점, 순기능과 역기능, 방식과 절차 등을 연구하고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단계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 방식과 시점, 절차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초중고 등교 시작 광주지역 초중고생들 95%가 등교를 시작한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초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철도 현안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정치권 나선다

정부 10년 계획 내년초 확정 광주·대구 국회의원 참석 '내륙철도 예타 면제' 토론회 전라선 고속화 필요성 피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열리고, 저속철 논란을 빚은 '여수~익산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국회 국감 등을 통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께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광주·전남 현안 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관련법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특별법을 한목소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 현안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도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더불어민주당·북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께 국회교통위와 광주시·대구시, 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건설, 예비타당성면제 추진'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 정치권이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한 뒤 정부 등에 건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조850억원을 들여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해인사)~고령~대구(224.6㎞·단선전철)를 시속 200~250㎞로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이며, 양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내륙철도는 광주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근 막바지 용역 중인 광주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역을 통해 극락강~광주역을 지하로 연결하고 광주역 부지에 컨벤션 기능 등을 갖추는 것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광주와 대구의 물류산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향후 시베리아횡단열차 한반도 개통을 고려했을 때도 시급하게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가 0.483에 머물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대구간 노선 연장이 길어 공사비가 과다 투입되는데 현재 이 구간의 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성 기준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달빛내륙철도를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대구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 광주와 대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전라선 KTX 익산~여수 구간은 여전히 시속 120km의 반쪽 고속철에 머물고 있어 전라선 KTX 사업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최근 "전라선 이용객이 2012년 176만 명에서 2019년 69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다른 철도들도 공사 중인 만큼, 남아 있는 전라선도 하루빨리 고속철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의당 "5·18, 여순 항쟁 특별법 제정에 최선"

김종철 대표 5·18묘지 참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9일 5·18 민주화운동과 여순 및 4·3 항쟁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왜곡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대표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어 "호남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지역으로서 정의당은 호남지역민들이 보여주신 높은 민주의식에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제 민주화를 넘어 평등사회,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호남지역 주민들께 부탁드리고, 저희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 이슈였던 광주·전남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신중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신임 당 지도부는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 앞에 헌화·분향한 뒤 민주묘지 2묘역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도 찾았다. /최권일 기자 cki@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